

보도 일시	2023. 2. 9.(목) 10:00	배포 일시	2023. 2. 9.(목) 10:00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	책임자	과장 김병준 (042-481-7300)
		담당자	사무관 기미옥 (042-481-7296)

## 기상청, 정부업무평가 실시 이래 첫 「종합 우수」 달성 - 주요정책 · 정부혁신 · 정책소통 3개 부문 ‘우수’ 평가 -

- 기상청(청장 유희동)은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종합평가 '우수기관'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.
  - 기상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부업무평가가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며, 주요정책, 정부혁신, 정책소통 등 3개 부문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기관 종합 '우수'를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다.
-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신속한 재난 통보 등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추진한 국민 체감형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.
  - 지난해 8월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호우 및 9월 태풍 힌남노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극한 기상상황에서 기상청의 24시간 빈틈없는 감시와 예측 노력이 인정받았으며,
  -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한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성과와 지진보다 빠른 재난문자를 제공한 충북 괴산 지진(규모 4.1)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.
- 2021년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정부혁신 부문은, 특히 기관장의 혁신적인 지도력과 공공 데이터 개방·활용 노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.
  - 민간 교육 앱과 연계하여 학교 위치를 기반으로 초·중·고 학생에게 위험기상정보를 제공하고, 인공 지능(AI) 기술과 지자체 폐쇄 회로 텔레비전(CCTV)을 함께 활용하여 안전한 해상활동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,

- 전 세계 100년 전 관측자료부터 100년 후 미래 전망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상기후데이터허브 등 디지털 기반으로 공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, 디지털 약자에까지 데이터 활용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.
- 정책소통 부문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언론 및 현장 소통 활동을 강화하고, 국민 친화적이고 참신한 콘텐츠를 개발해 기상기후정보를 알려간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.
  - 기관장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생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태풍 힌남노의 위험성을 알리고, 재난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였으며,
  - 위험기상 예상 시 예보관이 출연하는 실시간 재난 유튜브(엠펙TV)를 운영하고, 지진 홍보영상(배우 지진희 출연)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.
- 한편, 규제혁신 부문은 '보통' 등급으로 2021년보다 한 단계 상향되었는데, 이는 위험기상 대응 강화를 위한 「기상법」 전면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기상관측망 확보를 위한 「기상관측표준화법」 개정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.
- 유희동 기상청장은 "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와 역대급 태풍 힌남노 등 극한의 기상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한 기상청의 노력이 인정받아 2022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이어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." 라며, "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우리 청 전 직원이 다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 김병준 (042-481-7300)
		담당자	사무관 기미옥 (042-481-7296)
<정부혁신>	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 김병준 (042-481-7300)
		담당자	사무관 조구희 (042-481-7293)
<정책소통>	대변인실	책임자	과 장 김희철 (02-2181-0352)
		담당자	사무관 노성운 (042-481-7209)